

2016 태국건축사협회 총회 및 엑스포 참관기

Report : 2016 National Convention of ASA

글. 이승석_ Lee, Seungseok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6년도 태국건축사협회 엑스포 및 건축사총회가 4월 27일부터 5일 동안 방콕 임팩트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우리협회(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이하 KIRA)는 태국건축사협회(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이하 ASA)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해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변국의 리더역할을 넘어 세계무대를 향해 약진하고 있는 태국 건축의 현주소를, 이 지면을 통해 여러 회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몇 년 전 태국을 여행으로 다녀올 때만 기억하더라도 이 나라는 그저 불교사원과 다양한 음식문화를 자랑하는 관광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물론, 호텔이나 리조트 등 관광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아직은 모든 면에서 개발을 더 필요로 하였고, 변화한 거리 이면에는 가로환경 정비 등 공공의 손길이 더욱 절실한 그런 나라로 보였다. 하지만 올해 태국 건축사 총회 및 건축엑스포를 참관하고 느낀 점은 건축 및 관련 산업



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으며, 그 동안 어떻게 이러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국의 관문인 수완나폼 국제공항은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회장님을 비롯, 올해 인천에서 치르게 될 건축사 대회의 조직위원장님과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까지, 우리 일행도 관광객들 사이로 줄지어 입국 수속을 마쳤다. 올해로 30주년을 맞고 태국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건축 엑스포 및 태국건축사협회의 총회에 참가하고자 방문한 이번 태국 일정은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을 필두로 조총기 회장님의 태국건축사협회 명예회원증 수여식이 있었고, KIRA 와 ASA의 협력현안을 나누는 간담회와 건축 엑스포 참관 그리고 행사운영에 대한 실무 팀과의 미팅까지 매우 바쁘게 진행되었다. 이번 ASA 총회 및 엑스포에는 KIRA를 비롯하여 일본(JIA), 싱가포르(SIA), 라오스 (ALACE) 등 ASA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주변국 건축단체 귀빈들도 참석을 하였다.

우리 일행은 이튿날 아침 건축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인 임팩트 컨벤션 센터로 이동하였다. 컨벤션 센터 입구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을 비롯하여 행사장의 이곳저곳을 알리는 안내판에는 참가하는 업체들의 로고가 빼곡히 새겨져 있어, 이 행사가 얼마만큼 관련 업계의 이목을 받고 있으며 대중들의 관심 안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로비 중앙에 준비된 자리에 앉기 전 개막식 참석을 위해 모인 태국건축사협회 주요 인사 및 정관계 내빈 그리고 주변국 건축단체 대표자들과 인사할 수 있었다. 태국건축사협회는 왕실에서 인증하는 조직이므로 이번 행사를 주관하며 왕실을 대표하는 공주의 입장과 더불어 시작이 된다. 그 뒤를 따라 주요 내외빈의 입장이 시작되며, 일반 관람객의 입장은 이날 오후부터 가능하다고 한다.



약 7만 5천 평의 행사장에 800여개 업체가 참가한 건축엑스포는 우리의 코엑스에서 열리는 웬만한 대형 전시회의 규모와 맞먹는다. 태국 내의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낯익은 글로벌 브랜드의 부스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변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업체들이 전략적 거점으로 태국에 지사 및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래 전부터 건축자재부분 제조업이 대기업과 내수 위주로 재편 돼버린 우리나라와는 아쉬운 대조를 이룬다. 전시장의 맨 중앙에는 ASA ZONE(태국건축사협회 특별 전시)이 위치해 있으며 전체 엑스포의 얼굴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해마다 전시의 주제를 알리는 슬로건과 휘장을 새로이 만들어 안내판과 홍보물 등에 일관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는 그 해의 행사가 다른 해와 구별되는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ASA에서 선정한 올해의 건축상 작품들을 비롯하여 학생 국제공모전 수상작, 일본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및 최근 설계를 마치고 건설 중에 있다고 하는 국회의사당 신청사 설계관련 내용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밖에 ASA ZONE 한편에 하우징 클리닉이라는 부스를 운영하며 엑스포를 찾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관련된 모든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었는데 열띤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ASA ZONE은 부동산, 제조업 등 건축 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곳을 찾는 일반인에게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 직업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는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관람에 지친 몸을 이끌고 찾은 ASA CLUB이라는 공간은 건축사협회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휴식 공간이며 가벼운 스낵과 음료를 제공한다. 바로 옆 ASA SHOP에서는 협회 로고 또는 엑스포 슬로건과 휘장을 새긴 티셔츠 모자 등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점심 후에는 명예회원증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태국건축사협회는 해마다 협회를 위해 공로가 있는 건축 외 타 분야 인사와 교류국가 단체장 가운데 선별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를 한다. 올해에는 조충기 회장님께서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었으며 태국 건축사 총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다음에 준비된 일정은 행사에 참석한 외빈들을 위한 건축투어다. 먼저 찾은 곳은 태국은 행 박물관으로 오래 전 태국 왕실의 일부였다가 근 현대 시기에 태국은행 본점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제는 태국의 화폐 및 금융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다. 관람객이 우리 일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던 이유는 예약제로만 관람이 가능했기 때문이 아닐까. 관람 전 마련된 조출한 다과를 비롯하여 아무도 없는 박물관을 편하게 관람하면서 느낀 점은 손님을 대하는 태국건축사협회의 세심함 이었다. 관람을 마친 각국 일행은 좀 더 격을 허물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다음으로 장소를 옮긴 곳은 최근 준공한 THE COMMONS라는 상업시설이다. 눈에 띄는 노출콘크리트 외장과 거대한 필로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내 외부 공간을 엮어놓았는데 건축적인 컨셉이나 레스토랑 및 식음료 시설의 배치 등이 매우 흥미로웠다. 방콕 도심에서도 가장 변화한 지역에 가장 트렌디한 건축물이라는 이 시설은 건물 구석구석에 감추어진 아기자기한 아이디어들이 사용자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었으며 또한 태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건축사의 작품이라는 점도 한 번 더 눈여 보게 만드는 대목이었다.



방문 삼일 째에는 양 단체 간의 간담회가 오전 일정으로, 태국 건축엑스포 실무 팀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오후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매년 교차방문을 이어가고 있는 ASA와 KIRA는 상호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주요 안건은 양국에서 벌어지는 전시, 건축탐방, 청년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적 교류 및 작품교류이지만 향후에는 정부발주 용역에 양 국가의 건축사가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한국은 2017년도 세계건축대회를 치를 예정이기에 이와 관련한 ASA의 참여계획 등이 언급되었으며 KIRA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번 태국방문에는 올해 건축사대회를 준비하시는 조직위원장님과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 특별히 동행을 하셨다.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내용면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의 건축사대회는 이렇게 끊임없는 벤치마킹과 연구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태국 건축엑스포 실무 팀과의 미팅에서 많은 현실적인 내용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오갔다. 엑스포는 30년 전 시내의 한 호텔에서 매우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참가업체 수가 820여개에 이르며, 매년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원하고 있다. 현재 태국 내에서 열리는 건축 산업 관련 엑스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면서 무료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이 행사는, 참여업체의 부스대여료만으로 수익을 만들고 ASA ZONE이라는 특별전시를 통해 엑스포가 단순히 업체들의 각축장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건축은 우리의 경제를 담당하는 산업의 한 축일 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한 분야라는 인식을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이 행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따라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앞서 말한 ASA

ZONE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전체 엑스포와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하나의 행사로 진행되는지 등등 여러 실무적인 얘기들이 오가는 오랜 시간 동안 회장님 이하 우리 일행은 많은 공감과 우리가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나누며 더 나은 대한민국의 건축사대회를 위한 마음을 다졌다.

태국건축사협회 회장 주최 만찬을 참석하는 것으로 이번 출장의 마지막 일정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우리는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돌아오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진 이유는,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를 산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더 미숙하다는 판단 때문일까. 행사의 규모와 내용뿐만 아니라 홍보와 진행 같은 실무적인 것에서부터 대중과 호흡하며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건축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에 이르기까지, 이번 태국 건축엑스포와 건축사협회 총회는 많은 점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단순히 놓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글로벌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영업 및 생산기지로 삼고 있는 태국의 건축 산업 성장 잠재력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각 나라의 건축사협회는 그들만의 다양한 현재와 과거를 담은 메인이벤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과 어떤 역사를 담아내야 할까. 올해 건축사대회를 기대하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